

# 민주 서울시장 경선 김선 4파전

### 천정배·신계륜·박영선·추미애 출사표

### 민주·민노당 후보와 박원순 통합경선

민주당 등 아권의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구도가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선(先) 정당 후보 선출, 후(後) 통합경선' 방식의 아권 후보단 일화가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우선 민주당에선 당내 경선후보 등록 마감일인 15일 오전 현재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그동안 출마여부를 고민해온 재선의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이날 출마 결심을 굳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한명숙 전 총리가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당 지도부로부터 출마 요청을 받았다.

박 의장 측은 "안철수 신드롬을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 민주당에 새 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계파를 초월한 통합형 후보로 나서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천정배 최고위원과 신계륜 전 의원도 경선 후보등록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동안 고심을 거듭했던 추미애 민주당 의원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를 결정하고 16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은 4파전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그 어느 누구의 우세를 점칠 수 없는 팽팽한 구도가 형성되면서 나름대로 흥행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전신 출신의 천정배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하며 정치적 운명을 걸었다는 점에서 선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후보군이 박원순 변호사에 비해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경선 흥행이 우려됐으나 현재의 4파전 구도가 팽팽하게 형성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아권의 만형으로 당당하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최규열 새세상연구소 소장, 이상규 전 서울시장 위원장, 김종민 서울시장 위원장이 후보로 거론된다.

민노당과의 통합 불발에 따른 여진이 남아 있는 진보신당은 내부 회의를 거쳐 후보 옹립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한국참여당은 아권 경선에 따라 후보를 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권의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통합 경선은 각 당 후보 선출이 마무리되

는 이날 말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25일 후보를 최종 확정한다.

통합 경선에는 민주당과 민노당이 각각 선출한 후보와 시민사회의 대표격으로 나온 박원순 변호사가 참여한다.

박 변호사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하며 아권 내 다른 후보들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통합 경선은 사실상 박 변호사의 독무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아직 박 변호사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데다 무당적인 박 변호사가 경선 조직력에서 밀릴 수 있어 승리를 100% 장담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천정배



박영선



추미애



신계륜

## 孫 “노동시간 줄여 ‘저녁이 있는 삶’ 만들겠다”

### 정당대표 연설, 정시퇴근제·집중휴가제 도입 시사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5일 “저녁이 있는 삶은 복지국가의 출발”이라며 정시퇴근제와 집중휴가제 도입 추진의사를 밝히는 등 정책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손 대표는 이날 KBS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노동시간을 선진국 평균수준으로 줄이고 그만큼 고용을 늘린다면 선진국 수준인 70% 이상의 고용률을 실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과근로시간 단축 문제”라며 “야근을 제한하는 정시퇴근제, 여름휴가를 2주일로 늘리는 등 집중휴가제로 실근로

시간을 줄인다면 일자리와 삶의 질,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거머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활있는 자가 짓밟으면 약자는 영원히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사회가 돼가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며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화두로 제시했다.

그는 지난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통한 비정규직 차별을 주장했다고 소개한 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선진국형 산업별 노사관계를 반드시 정착시켜겠다”고 다짐했다.

손 대표는 또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복합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 축사에서 “남북관계는 2000년 상태가 정상이고 지금이 비정상”이라며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민생을 다시 일으키면서 남북평화를 이룩하고 남북이 협력해서 함께 잘 사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가 이처럼 각종 정책대안을 잇따라 제시하는 것은 대안 있는 야당 대표와 책임 있는 대선주자로서의 모습을 국민에 각인시킴으로써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한 서울시장 후보 내달 4일 선출

한나라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될 당 후보를 내달 4일 선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1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선정 일정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기현 대변인이 전했다.

한나라당은 내주 19~21일 사흘간 후보 공모를 실시한 뒤 22일 후보선정 점수를 받는데 이어 공천심사위원회를 가동, 후보 심사를 진행하고 내달 4일 후보를 선출하는 일정을 확정했다.

후보 점수 신청은 당 안팎 인사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여야, 오늘 양승태·조용환 국회 표결 추진

### 본회의 상정 잠정 합의

여야는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과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을 상정키로 잠정 합의했다.

15일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19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대담기 관 승인건과 7개 법률개정안을 상정,

표결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현안인 양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조 후보자 선출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견이 남아 있어 최종 표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양당 원내대표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등을 내일 본회의의 상정을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처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법원장 임명동

의안과 헌법재판관 선출안은 의원총회를 거쳐 상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 “한나라당이 조 후보자 선출안을 권고적 당론으로 찬성하는 지를 보고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나라당은 조 후보자의 ‘이념편향’ 문제를 들어 권고적 당론을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임채민 ‘부당공제’·최광식 ‘초고속 승진’ 추궁

### 보건·문광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5일 임채민 보건의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복지분야 전문성 부족과 부당 소득공제 의혹이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인사와 복지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다”며 “보건복지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보건복지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성장한 분이 많은데 공

고롭게도 그런 분야 사람을 제치고 경제 관료 출신을 내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임 내정자는 대통령령에서 전관예우로 50일동안 5300만원을 받았고, 아버지는 해마다 몇 달씩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사위 회사에 위장취업해서 월급을 받는데도 소득이 없는 것처럼 소득공제를 신청해 탈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임 내정자가 2007년~2009년 3년간 근로소득자인 부인을 기본공제와 추

가공제 대상으로 포함해 이중 공제를 받았다는 것.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최 내정자의 ‘초고속 승진’ 배경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였던 최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 국립중앙박물관장에 임명된 데 이어 지난 2월 문화재청장을 거쳐 ‘8·30 개각’에서 문화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박지경기자 jkpark@

### 정가 라운지

#### 민주 전남도당 ‘여성 아카데미’ 개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이낙연 의원)은 지역 여성 정치인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여성정치 아카데미’를 개설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당은 우선 제1차 여성정치 아카데미를 오는 17일 나주 농협 회의실에서 나주·화순·함평·영광·장성 등 서부권 11개 시·군 여성당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손학규 대표의 격려사와 최인기 의원의 축사에 이어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정권교체의 시대적 사명과 여성의 역할’, 이낙연 전남도당위원장의 ‘안철수 현상을 생각한다’는 주제의 강연 순으로 진행된다. 도당은 또 오는 24일 목포 전남여성플라자에서 2차 아카데미를 개최하며,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는 여수·순천 등 동부권에서 3차 아카데미를 개최할 계획이다.

#### 민주, 위키리크스 국정조사 제안

민주당은 15일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한국 자유무역협정(FTA), 남북관계 등이 포함된 미국 외교전문을 공개한 데 대해 국회 차원의 위키리크스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한나라당에 제안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키리크스가 폭로하고 있는 미국 외교전문에 의하면 대통령의

도덕성과 국가관을 의심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폭로내용은 국정 전반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각 상임위 국정감사로는 총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고위정책회의에서 “한국과 관련한 폭로사항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지나치기에는 사안이 너무 중요하다. 카자흐스탄 화력발전소 수주 건, 이명박 대통령의 캠프 데이비드 방문 건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한미 FTA 1차 협상이 종료된 후 허시바우 주미대사 등을 만나 2014년 이후 쌀 시장 전면개방을 약속했다고 폭로했다”며 김 본부장의 해임과 국정조사, 청문회 실시를 요구했다.

#### 광주시의회 장애인 방청석 15석으로

광주시의회는 본회의장 내 장애인 방청석을 2석에서 15석으로 대폭 늘렸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전체 156개 방청석 중 장애인 방청석이 9.7%를 차지해 16개 시·도 의회 중 장애인 방청석 비율이 가장 높다.

시의회는 그동안 장애인에 대해 수화통역 시행, 자동 리프트카, 경사로, 전용 화장실, 낮낮이 조절되는 전동발안대 등을 설치하는 등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해 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사무실 임대

금남로 4가 구, 삼성생명 건물  
구, 중앙교회 건너편

- 지하 1층~지상 6층
- 층별 94평 (분할가능)

병원, 학원등  
다양한  
업종가능

대형 주차장 완비

문의 062-953-5511  
010-3617-8810

## 남성 성기능 강화제

본제품은 왕라, 북분자, 구기자, 갈근 등 20여가지의 한약재로 제조하였으며, 특히 왕라는 허브의 일종으로 자양강장작용을 하여 다미아나 혈관과 호르몬계의 도움이 된다. 단백질을 저장하는 힘을 돋구어 근육을 강하게 해준다는 미유나프린스를 주성분으로 하여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직접 드셔보시고 확인하세요.

● 평소에 발기는 되나 지속성이 없거나 조루가 있는 분들은 성관계 전 약 2-3시간전에 1정을 섭취하면 1-5일까지도 지속할 수 있습니다.

● 발기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분들은 1일 1정을 3-7일 정도를 연속으로 섭취 하시면 발기가 잘됩니다.

문의 전화 010-7705-2535 주문즉시택배 무료배송

## 옥상·외벽·내벽·주택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정마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집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비택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특수 방수 | 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